

이일산업, 이소파라핀 저장탱크 폭발

180kl 저장탱크 청소중 폭발로 직원 2명 중상 ... 시내까지 폭발음 들려

4월9일 오전 10시40분께 전남 여수시 주삼동 여수산업단지 이일산업에서 180킬로리터 용량의 액체 석유화학 원료(이소파라핀) 저장탱크가 폭발했다.

폭발사고로 이일산업 공장 유리 수싯장이 깨지고 생산과장 김모(33)씨와 서모(38)씨 등 직원 2명이 크게 다쳐 인근 제일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이다.

경찰은 “김씨 등이 탱크 안에 들어가 청소하던 중 갑자기 폭발했다”는 이일산업 관계자의 말에 따라 정확한 사고경위와 피해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 여수환경운동연합

이일산업은 인근 대림산업에서 이소파라핀(라이트 폴리머) 등을 구입해 드라이크리닝, 세척제, 연료유, 도로 희석제, 살충제 등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4/12>